

## 화성문화제, 위대한 여정 60년

### 경기도청 이전과 화성문화제의 탄생

화성문화제는 1964년 10월 15일에 경기도청 기공식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되어 2023년 현재까지 60년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청의 이전 문제는 1946년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고, 1948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을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전 후보지로는 경기도 내 제1도시인 인천과 수원이 경쟁을 벌였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잠잠했던 논의는 1953년 4월 인천에서 이전 논의가 시작되고, 여기에 수원이 참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0여 년간 논쟁이 지속되다가 1963년 12월 11일 경기도청 이전지가 수원으로 결정되면서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수원은 수원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기도청 수원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도청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과 인천에서 논의를 주도한 사람은 후일 해당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병희와 유승원이었다. 이 두 사람은 5.16군사정변에 참여한 후 정계로 진출하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도청 유치 경쟁을 통해 지역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정부에서는 1963년 4월 8일 총선거를 앞두고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두 사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환영대회(이병희 유족 제공)

람은 무난히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경기도청 수원 이전을 발표했다. 향간에는 이병희가 머리를 삭발하고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 '도청 수원 이전'을 얻어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된 이듬해인 1964년 경기도청 기공식이 있던 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원시민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밴드부 공연과 횃불 행진이 개최되어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것이 화성문화제의 시작이다.

## 화흥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

화흥문화제는 1965년부터 정조대왕능행차가 결합되면서 수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정조대왕능행차는 가장 행렬 정도의 퍼레이드였지만, 수원 사람들에게는 각별했다. 정조대왕이 수원신도시를 건설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13번이나 행차할 정도로 애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종, 순종은 말할 것도 없이 1938년 4월 23일 왕세자인 영친왕 이은이 마지

막으로 행차를 한 곳도 수원의 융건릉이기 때문이다.

화성문화제 초창기 정조대왕능행차는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볼거리가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조선후기 수원화성 신도시 건설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에 충분했다. 이후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역사 고증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1960~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문화제 정비 및 복원이 추진되어, 한양도성의 보수·복원을 시작으로 신라고도 정비 및 경주 불국사 복원, 현충



1964년 경기도청사 기공식 날 개최된 횃불 퍼레이드(이병희 유족 제공)



1965년 제2회 수원시민의 날 수원고등학교 정조대왕행차(수원고등학교 제공)



1978년 화흥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이흥구 제공)

사 종합정화사업. 그리고 수원화성 복원정화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1975년 수원화성 복원정화사업 이후에 수원에서도 『화성성역의궤』가 번역되었으며, KBS 드라마 극작가인 이서구의 능행길 답사 기록과 ‘조선열성능행만차도’ 병풍사진을 기증받아 능행차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수원시장 이재덕, 예총 지부장 안익승, 수성고등학교 교사 이흥구 등이 모여 복원을 도모하고, 8개 학교 교장단과 협의하여 각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 수원고등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선정되고 각 학교당 60명씩 24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경기감사에는 유신고, 대취타대는 매향여고, 왕과 문무백관은 수원고, 금위대는 수원농생고가 맡았다. 이때 의상 제작은 수원시 내 교복을 만들었던 ‘예쁘다 양장점’에서 맡아줬다.

능행차는 지지대고개에서 장안문-팔달로 이어졌고, 화산 용건릉 참배까지 확장되었다. 정조 임금과 혜경궁의 가마를 에워싼 군인들이 각종 깃발과 휘장을 나부끼며 줄지어 입성하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소문에는 혜경궁 역할을 한 수성고등학교 학생이 너무 예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팔달문을 지나가는 능행차 행렬과 문루에서 등을 밝히고 서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구

경하는 사람들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매년 열리는 화흥문화제는 수원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했다. 이후 1980년대 전국적으로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다양해지면서, 화흥문화제 역시 내용이 풍성해지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결합되면서 종합문화예술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음악·미술·국악·사진·체육·민속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고, 이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성장 기반도 마련되었다.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능행차 행렬은 주로 수원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담당을 했다. 그들은 능행차 외에도, 1970년대 자주 열린 반공 쫓기대회, 각종 규탄대회, 범시민쫓기대회, 전국체전이나 수원시 체육대회 등에 동원되는 일이 많았다.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사람들은 이러한 수원시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 화흥문화제에서 화성문화제로

1996년에 화흥문화제의 개최일은 경기도청 기공식 날에서 200년 전 수원화성 준공일인 10월 10일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에는 명칭도 수원화성문화제로 변경되었다.



2023년 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수원시 포토뱅크)

시민의 날 변경은 수원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지역의 역사, 정체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날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서울시는 1994년에 역사적인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최종 결정했고, 용인시는 9.28 수복을 기념하여 9월 30일로, 최근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로 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축제의 성격과 내용을 변화시켰다.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선발대회나 갈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민축제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2년 수원문화재단이 출범하고 화성문화제를 주관하게 되면서 해마다 중심 테마를 설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제50회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외국의 유명한 축제들 성과를 참조하여 보다 낫은 축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숙한 시민 문화축제, 화성문화제

화성문화제는 화려한 능행차와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화성문화제를 유지하는 효율적 관리시스템도 유명하다. 축제 기간 동안 수원화성 행궁 일대를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거리는 쉽게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런데 행사 끝난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치워져 다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러한 거리 정비와 청소는 60년 동안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이다.

화성문화제는 60년 동안 쌓은 축제 경험과 시민의식을 토대로 성숙한 축제문화를 만들어냈다. 뿌리 깊은 역사를 소재로 하고, 거기에 성숙한 시민참여가 결합하여 더하고 빼고 우려낸 깊은 맛을 만들어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진해벚꽃축제, 한국민속예술축제, 김해 가야문화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탐라문화제, 옥포대첩축제 등 6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축제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글 유현희 수원학연구센터 센터장